

강소연구개발특구 성과 발표

군산시, 전년도 강소특구 육성사업 성과발표·올해 사업비전 제시

군산시는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의 지난한해 성과와 육성사업 수혜기업 지원성과 공유를 위한 2021년 전북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 성과발표회를 22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강일준 군산 시장을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 김동익 군산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이강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네트워크 운영 기관 감사패 수여, 수혜기업 우수 성과 사례 발표(이브앤솔루션대표 민원기, (주)동양정공대표 최종진), 2021

년 육성사업 성과 및 사업계획 보고, 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 56개사의 사업성과 전시 및 기업홍보,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데모데이를 진행했다.

시는 2021년도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연구소기업 7개 설립, 기술이전사업(R&BD) 15개사 30억원 지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출자 22건, 창업 11건, 투자유치 특구진흥재단 본부장,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난해 특구재단이 주최한 혁신성장 IR(투자) 경진대회에서 이브앤솔루션(주) 최우수상, 모나일렉트릭(주)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이브앤솔루션 민원기 대표는 사례 발표를 통해 "1차년도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아이템 도출 및 사업화 전략지원으로 작지만 강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수혜기업 56개사의 사업성과 전시 및 기업홍보 부스를 마련해 기업 간 기술교류와 소통의 장이 됐으며, 모이IR(투자) 경진대회도 진행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 영등동에 추진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권 르네상스' 활력 기대

익산 영등2동 일대 810개 점포 5년간 최소 80~120억 지원

익산 영등동에 추진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되면서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익산 대로음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3월 초 중기부와 상권 르네상스 사업 계획 협의를 마친 후 영등동 810개 점포를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 구역과 세부 계획을 마련해 전북도와 중기부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사업 선정 후 지난 1월부터 2달간 총 4회에 걸쳐 중기부 상권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상권이 가진 콘텐츠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고도화해 2026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영등 2동 810개 점포

13만8,206㎡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상인과 구역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상생을 목표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5년간 80억원(국비 50%, 도비 10%, 시비 40%)의 예산이 투입되며 사업비 집행 등 우수상권 선정 시 최대 12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점포와 지역기업과의 상생, 백제단갈의 맛의 거리 조성, 개성 넘치는 청소년 거리 조성, 비대면 쇼핑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 상생거리 조성,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이다.

정현을 시장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많은 분들이 힘써주셨다"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5년간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영등 상권은 물론 지역 경제 견인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청년 정책 허브 '익산청년시청' 으로 모여라!

시, 청년 취·창업·문화·복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 허브 기능을 수행할 '청년시청'을 조성한다.

청년시청은 청년들의 취업부터 문화, 복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지역 청년들의 종합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으로 새롭게 단장한 옛 하노바 호텔에 청년들의 거점 공간인 '청년시청'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곳은 기존 익산청년센터 '청숲'의 기능을 확대해 취·창업, 문화, 복지 관련 각종 지원사업 등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총 4층 규모로 청년 문화·취업·창업·사무공간 등으로 조성된다. 1

층은 코로나 블루와 취업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오락 시설과 북카페 등이, 2층은 스타트업과 취업창업 컨설팅을 위한 상담실, 공유주방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창업팀 입주 공간인 창업보육실과 1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 사무공간, 명예시장실 등이 들어선다.

시는 청년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후 청년시청 기능을 확장하는 등 청년 중심의 맞춤형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8개 분야, 14개 사업에 총 55억100만원(도비 포함)을 투입해 최대 규모의 지원을

제공해왔다.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부터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창업 지원사업, 각종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목돈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익산형 기본주택'까지 청년들이 자립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립기반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청년시청을 중심으로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해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행복학교 졸업식, 평균연령 77세 23명 졸업생 배출

익산시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 배움터를 조성한다.

시가 22일 익산시평생학습관 세미나실에서 제2회 초등학교과정과 제1회 중학교과정의 익산행복학교 졸업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졸업식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초등학교과정 12명, 중학교과정 11명의 졸업생과 교사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그간의 학습활동이 담긴 영상을 함께 감상하고, 졸업장 수여 및 6명의 고교진학자에 대한 익산사랑장학재단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학습자는 "먹고 살기 힘든 시대를 만나 배움의 기회를 놓쳤는데, 익산행복학교를 만나 뒤늦게 초등과정과 중학교과정을 마치고 배움의 한을 풀게 되어 기쁘고, 기회를 열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중학교과정은 전라북도 최초로 2019년 1학년 과정을 개설하여 3년간의 교육운영과 학습으로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으며, 졸업생 중 초등과정의 최고령 학습자는 85세, 중학교과정의 최고령 학습자는 82세이다.

중학 졸업생 가운데 6명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등 고령의 나이에도 스스로 노력과 열정으로 학습의 성과를 이루었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통한 농산물 공급

군산시는 지난해 계획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꼬꼬미양배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돼 꼬꼬미양배추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방안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꼬꼬미양배추 등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산지부터 유통시설까지 단계별로 저온유통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이를 위해 저온냉장차량, 예냉·저온창고, 전처리 및 1차 가공시설, HACCP 시

설 등을 신축했다.

저온유통체계가 구축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총괄하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학교급식, 은평구·영등포구 동농상학교급식 및 전북도추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에 3년연속 선정돼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등의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 로컬푸드인증 농산물 공급을 위한 생산능가 발굴 및 지도, 판로 확보를 위해 회의 등을 하며 농산물 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지역농협, 농작업 대행 서비스 추진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고령화 및 인구유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겹쳐 일손부족에 시름하는 농촌을 위해 지역농협들과 손을 맞잡고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대형 농업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영세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농기계 조치가 어려운 고령농 여성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해주는 사업으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농작업 전문기계의 손길로 작업 품질까지 높아 지역농업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시는 전라북도와 지난 2021년에 4개 농협(군산 서군산 옥산, 옥구농협)에 3억 5천만원 규모의 농기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4개 농협(대야 서군산 옥산, 옥구농협)에 3억 8천만원 규모의 장비를 지원하고, 아울러 청년 농업인 농작업 대행단을 구성하여 드론방제 등 최신 기술을 이용한 농작업 대행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기자

군산시, 고양이 등록 사업 시행·안전조치 강화 실시

군산시는 증가하는 반려고양이의 유실·유기 발생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안락문화 정착을 위해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반려묘 소유자는 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전국 어디서나 고양이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고양이 행동 특성상 외장형으로 등록 시 탈착이 나 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이 의무화되었지만 반려묘 등록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며 유품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고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없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군산=남현봉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